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

이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일반연왕

1.1. 일반·정치외교 연왕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동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남쪽으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46만 9,900km²로 한반도의 2.2배 정도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형으로 전 국토의 80%를 차지하는 카라쿰(Karakum)사막의 영향으로 기후 역시 대륙성 사막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4~15℃ 정도로 온화하며, 여름 평균기온은 35℃, 겨울 평균기온은 -4℃이다.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520만 명으로 투르크멘인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크인 5%, 러시아인 4%, 기타 6%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언어로 투르크멘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어가 통용되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수니파)가 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동방정교(9%), 기타 종교(2%)가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는 아쉬하바드(Ashgabat)이며, 약 9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투

* (yjlee401@krei.re.kr)

르크메니스탄의 지방행정은 아쉬하바드 특별시, 아할, 발칸, 다쇼구즈, 레밥, 마리 등 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그림 1 투르크메니스탄 지도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juri1540?Redirect=Log&logNo=80019612054>).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10월 27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현 대통령은 2012년 재당선된 베르디무하메도프(G. Berdimukhamedov)로, 전임 대통령인 니야조프의 사망으로 2007년부터 집권하였는데, 2012년 96%의 투표율 중 97%를 득표하여 재집권을 하게 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장관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정부 인사들을 연임시켰다. 또한 언론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등 정치와 언론, 종교 다방면에 걸쳐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니야조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대통

령 중심의 통치정책이다. 이러한 국가통제로 실질적인 저항세력이 없으며, 사회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보조금정책을 펼치고 있어 사실상 집단적 대규모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기초생계비 제공 등에서 재정지출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소요사태 및 사회불안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였다. 과거 러시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주요 수출대상국이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안보 유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자국 내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큰 편이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으며, 가스수출국 자변화 정책에 따라 중국, 이란, 유럽연합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는 주요 교역파트너이지만 가스 수출가격과 규모에 대한 갈등과 가스관 사고 등으로 인한 對러시아 가스수출 중단 등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2009년부터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이 개통되어 중국으로의 가스공급이 시작되었는데, 1년 후인 2010년에는 기존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었던 러시아의 수출물량을 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2015년까지 연간 수출규모를 650억 m^3 로 늘리기로 하였는데 이는 기존 목표치인 400억 m^3 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또한 기존의 가스라인과 더불어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공화국-중국을 잇는 가스관을 건설 중에 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국 간의 교류 및 협력이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2. 경제·사외 연방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GDP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24%, 농업이 7%를 차지하고 있다(2014년 기준). 주요 부존자원으로 석유, 천연가스, 유황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스와 석유는 주요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이외 주요 수출품으로는 면화류와 직물이 있다. 가스의 경우,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가스가격도 상승하여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품목이다. 이러한 재정수입의 증가는 보

조금 등 가계 및 기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로 이어져 건설, 유통, 교통 부문에서의 국내수요 진작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구조는 국제가스 가격변동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표 1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292	352	408	475	542
	1인당 GDP	달러	5,290	6,263	7,157	8,203	9,211
	경제성장률	%	14.7	11.1	10.2	10.1	11.5
	재정수지/GDP	%	3.6	6.4	1.3	0.1	0.6
	소비지물가상승률	%	5.3	5.3	6.8	5.0	5.5
대외 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TMM ¹⁾	2.9	2.9	2.9	2.9	2.9
	경상수지	백만 달러	582	15	-1,194	-900	-174
	상품수지	백만 달러	5,390	5,761	4,500	5,625	..
	수출	백만 달러	16,751	19,889	19,900	21,777	..
	수입	백만 달러	11,361	14,128	15,400	16,152	..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21,842	25,417	25,852	27,043	..
외채 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2,937	6,353	8,375	7,511	7,920
	단기외채	백만 달러	148	268	159
	총외채잔액/GDP	%	10.0	18.1	20.6	15.9	14.4
	외채상환액/총수출	%	1.5	1.7	2.0	8.6	7.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투르크메니스탄의 GDP는 2014년 기준 47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292억 달러, 2012년 352억 달러, 2013년 408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또한 2015년에는 5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기준 1인당 GDP는 9,211달러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4년 10.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1년 14.7%, 2012년 11.1%, 2013년 10.2%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2015년도에는 11.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 마나트(Manat): 2009.1.1. 구화폐 5,000 Manat를 신화폐 1 Manat로 대체하는 화폐개혁 단행

1.3. 우리나라와의 관계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와 1992년 2월 7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주요협정으로는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2008),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설립협정(2008), 항공협정(2009) 등이 있다. 북한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1992년 1월 10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북한과 체결한 주요협정으로는 통상경제협력협정이 있다.

표 2 한-투르크메니스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	242,714	193,509	141,189	자동차, 컴퓨터, 합성수지
수입	472	837	126	천연섬유사, 의류, 계측제어분석기
교역 규모	243,186	194,346	141,3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규모는 2011년(2,431억 8,600만 달러)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의 對투르크메니스탄 수출규모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표 2 참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529억 7,100만 달러), 컴퓨터(182억 3,300만 달러), 합성수지(126억 4,600만 달러) 등이 있으며, 천연섬유사(3,900만 달러), 의류(3,200만 달러), 계측제어 분석기(2,900만 달러) 등을 수입하고 있다(201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현대상사, LG 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광구개발, 석유화학 사업분야에 진출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내 상주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아직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진출 사례가 없으며, 향후 진출 가능한 분야이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유무상 원조실적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지원액은 258만 달러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한 유상원조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농업연망

2.1. 농업여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반도의 2.2배인 4,881만 ha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국토 면적 중 경지면적은 약 4%인 194만 ha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아 국가 중 가장 작은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다. 경지면적 중 180만 ha가 관개농지인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관개에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며, 농업생산에 있어 척박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투르크메니스탄 토지면적 구조

단위: 1,000 ha

구분	2012
육지면적(Land Area)	46,993
농업지역(Agricultural Area)	33,838
경지면적(Arable Land)	1,940
영년식물(Permanent Crops)	60
영구목초(Permanent Pasture)	31,838
관개농지(Irrigated Area)	1,800
전체 국토 면적	48,810

자료: FAOSTAT Database.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은 2014년 기준 GDP대비 1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경제인구 중 농업종사자 비율은 28.3%이다. 이 수치는 1999년 34%, 2004년 32%, 2009년 30%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 인구 중 농촌인구의 비율은 51%로 높은 편이다(FAOSTAT 2015)<표 4 참조>.

표 4 투르크메니스탄 노동 인구

	인구 (단위: 백만 명)			
	1999	2004	2009	2014
전체 인구	4.45	4.70	4.98	5.31
노동 인구	1.82	2.05	2.32	2.60
농업 분야 노동 인구	0.62	0.65	0.70	0.73
총 노동인구 중 농업종사자 비중(%)	34	32	30	28.3

자료: FAOSTAT Database.

2012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1ha당 생산액은 599달러이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액은 1997년 389달러, 2002년 611달러, 2007년 794달러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각 연도별 생산액의 성장률은 1997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07~2012년 시기에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FAOSTAT 2015) <표 5 참조>.

표 5 투르크메니스탄 1ha당 작물 생산가치

단위: USD

	생산액				성장률 (%)		
	1997	2002	2007	2012	1997 -2002	2002 -2007	2007 -2012
1ha 당 작물 생산	389	611	794	599	9.45	5.38	-5.48

자료: FAOSTAT Database.

2.2. 생산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생산을 살펴보면 2012년 생산액 기준으로 소고기(3억 9,100만 달러)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양고기(3억 6,200만 달러), 면화(2억 8,200만 달러), 우유(2억 3,600만 달러), 밀(1억 3,700만 달러), 포도(1억 3,700만 달러), 토마토(1억 3,400만 달러)등의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투르크메니스탄 농업 생산 현황(2012년 기준) - 생산액 기준

순위	상품	생산액(천 달러)
1	소고기	391,673
2	양고기	362,132
3	면화	282,982
4	우유	236,324
5	밀	137,838
6	포도	137,188
7	토마토	134,981
8	목화씨	115,856
9	울	74,612
10	감자	44,643

자료: FAOSTAT Database.

생산량 기준으로는 우유(218만 톤)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밀(120만 톤), 면화(39만 톤), 토마토(36만 톤), 감자(28만 톤), 수박(25만 톤), 포도(24만 톤) 등이 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축산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우유를 제외하고 곡물 및 과일 순으로 나타난다(FAOSTAT 2015) <표 7 참조>.

표 7 투르크메니스탄 농업 생산 현황(2012년 기준) - 생산량 기준

순위	상품	생산량(톤)
1	우유	218,000
2	밀	120,000
3	목화씨	396,000
4	토마토	365,000
5	감자	280,000
6	멜론	250,000
7	포도	240,000
8	시탕수수	235,000
9	면화	198,000
10	쌀	150,000

자료: FACSTAT Database.

구소련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은 면화를 단일 품목으로 하여 면화를 집중적으로 재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구소련 연방의 6개의 면화재배국 중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은 국가였다.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밀의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면화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주요 면화 생산국이다. 또한 축산 역시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는 농작물 생산의 비중이 더 많았지만 독립 이후 축산에서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우유의 경우, 1990년 43만 6,000톤에서 2007년 210만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소고기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3배가 증가하였다.

2.3. 농산물 수출입

투르크메니스탄은 주요 농산물로 밀을 생산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양(11만 톤)을 수입하고 있기도 하다. 밀에 이어 설탕(10만 147톤), 감자(6만 3,660톤), 밀가루(5만 1,721톤) 등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콜릿이 5,587만 달러로 가장 높고, 밀(4,000만 달러), 감자(3,150만 달러), 설탕(2,700만 달러), 밀가루(2,195만 달러), 해바라기유(1,212만 달러) 등의 순이다.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주로 설탕, 밀가루, 음료, 초콜렛, 마가린 등 가공을 거친 상품들을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산물 수입 현황(2011년도)

구분	수입량 기준		수입금액 기준	
	품목	수입량(톤)	품목	수입액(천 달러)
1	밀	110,000	초콜렛	55,875
2	설탕	100,147	밀	40,000
3	감자	63,660	감자	31,500
4	밀가루	51,721	설탕	27,000
5	무알콜음료	25,617	페스트리	24,838
6	양파	18,104	밀가루	21,950
7	초콜렛	17,420	무알콜음료	19,621
8	마가린	11,696	정세설탕	19,057
9	페스트리	10,751	마가린	15,788
10	정제 설탕	9,520	해바라기유	12,125

자료: FAO STAT.

주요 수출품목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면화와 관련된 품목으로 면실, 생면, 면화, 폐면 등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의 경우, 소고기, 양고기, 우유 등의 생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수출에서는 이러한 품목의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양가죽, 염장피 등의 피혁제품을 수출하고 있다<표 9 참조>.

표 9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산물 수출 현황(2011년도)

구분	수입량 기준		수입금액 기준	
	품목	수입량(톤)	품목	수입액(천 달러)
1	면실	47,000	면화	127,346
2	생면	44,323	면화 린터	10,775
3	면화 린터	10,438	면실	6,800
4	울	4,985	폐면	4,057
5	폐면	2,537	울	3,638
6	염장피	2,248	염장피	1,413
7	양파	1,485	목화기름	1,196
8	목화기름	1,068	양가죽	505
9	신선채소	703	알콜음료	500
10	사과	669	오이	317

자료: FAO STAT.

3. 농업정책

3.1. 농업 생산구조 개혁

투르크메니스탄의 토지 개혁과 농업 구조 개혁은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와 토지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1) 개인 농가에게 토지 분배, 2) 소련시대에서부터 상속된 대형 농장의 구조 조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전형적인 가족농(개인소농가), 데칸(dekhkan, daikan) 농장²⁾과 소작농민연합(Peasant Association)³⁾이라는 세 가지의 생산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표 10 참조>.

표 10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생산자 그룹

	개인소농가 (Households)	데칸 농장 (Daikhan Farms)	임차인 (Leaseholders)
토지 소유권	개인 소유	국가로부터 장기임대	소작농민연합으로부터 임대
토지의 질	경작 가능	경작지, 관개되지 않은 사막	경작 가능
농가 규모	0.5~1ha	20~50ha	3~10ha
생산 가능 농작물	원예, 곡류	곡류, 면화, 원예	곡류, 면화, 원예
국가의 통제 정도	없음	거의 없음	전략 작물의 경우 의무적 다른 작물의 경우 국가통제 없음
판매망	시장	국가 판매체계, 잉여분과 비전략 작물의 경우 시장	국가 판매체계, 비전략 작물의 경우 시장
투입재 및 서비스	시장	국가, 시장	국가, 시장

자료: FAO 2012

구소련 시대에 농업 분야에서의 민간 부문은 가족농이 대표적인 형태였으며, 이 당시 약 4만 ha의 경작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1년 독립 이후 개인소농가에게 분배하는 토지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 5만 ha에서 1995년 12만 5,000ha, 2007년에는 13만 5,000ha로 분배된 토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의 규모가 0.5~1ha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수의 개인소농가에게 분배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농의 경우, 국가의 통제정도가 없으며, 판매체계와 투입재 및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생산주체이다.

1993년에는 데칸농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자그룹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토지 사유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국가는 데칸농장에게 지불 없이 장기로 토지를 사용할 수

2) 대규모 기업농의 형태.

3) 소작농민연합의 임차인(Leaseholders)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음.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이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 데칸 농장에게 분배된 토지는 사실상 관개되지 않았거나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의 토지가 대부분이었으며, 데칸농장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토지를 개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칸농장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1993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데칸농장은 2000년도에 7,000개까지 형성되었으며, 1995년에는 10만 ha, 1998년에는 11만 6,100ha의 토지에서 경작하였다. 데칸농장의 경우, 국가의 통제가 거의 없지만 잉여생산물과 비전략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의 판매체계에서 판매해야하며, 투입재와 서비스를 국가와 시장에서 공급받는 등 개인소농가보다는 국가의 개입이 더 강하다.

소작농민연합은 전체생산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체경작지 중 약 95%를 통제하고 있다. 소작농민연합은 1) 임차인에게 분배된 국가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 마을의 농업인프라를 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받고, 3) 국가의 결정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작농민회를 통하여 토지를 임대한 개인 소농들은 국가의 통제를 많이 받는 편으로, 전략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종자, 수확시기 등은 국가의 전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식량자급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의 식량안보정책은 국내 식량자급률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1994년 농민들의 기본 생산활동 지원에 보조금 정책을 수립하여 식량작물의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농업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폐지하여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생산 증대, 농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에는 “2013-2017 국민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 on Healthy Nutrition of the Population of Turkmenistan for 2013-2017)”을 채택하여 식량자원 특히 밀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3. 국가농업개발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은 2011년에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2030’을 수립하였으며, 농업부문의 발전이 주요목표로 포함되었다. 농업부문에서의 주요목표는 1) 농업분야의 고용창

출을 통한 에너지 편중 경제구조 탈피, 2)농업에서의 국가 통제(특히 면화, 밀, 쌀, 사탕무 등 전략작물에서의 국가 통제) 완화, 3)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캔 식품, 유제품 생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소규모의 농산물가공기업 육성을 세부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과 제조업분야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0 경제·정치·문화발전전략'에 따라 농업기반시설과 더불어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각종 농기계 수입, 농수용 저수지, 수력발전소 및 관개시설 건설과 낙후된 농축산물 가공 및 포장설비 확충이라는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남부지역 관개시설 확충 프로젝트(4억 2,500만 달러), 카라쿰운하연장사업(2,680만 달러), Murgap, Tedjen강 범람 방지시설확충사업(3,500만 달러), 채소오일생산공장재건사업(2억 6,800만 달러), 마가린·마요네즈생산설비건설(1,560만 달러), 육류 및 식료품포장지생산시설건설사업(1,000만 달러)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 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인구 중 51%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80% 이상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실제로 전체 국토의 4%만 경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10대 면화생산국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이후에도 면화를 가장 수익성이 있는 작물로 판단하여 생산에 주력하였으나, 관개시설 부족, 농기계 부족, 토지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의 식량자급정책으로 그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면화품목을 제외하고 포도, 멜론, 토마토 등의 과채류의 생산 비중이 높으며, 사과, 오이 등은 주요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품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품질의 과채류는 수출에서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단계를 거쳐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가스 위주로 편중된 경제구조와 산업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식품가공 및 포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가공산업이 국가개발전략 안에 포함되어 관련 세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과채류 가공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과채류를 이용하여 음료수, 주스원액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지로부터 원료의 운송, 보관 및 저장에 어려움이 있어 좋은 원료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송, 저장, 보관 등의 유통체계와 관련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다면 제조업 분야에서의 상당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농업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 농업분야에 진출한 사례가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농업생산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과 관련해서는 진출이 어렵지만 운송·저장·보관 등의 유통체계와 식료품가공 및 포장시설 설비구축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식. 2012.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강릉대학교.
외교부. 2008. 우리 기업의 중앙아 5개국 진출 안내. 서울.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3. 2014 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4. 국별리포트(투르크메니스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Adilya Baydildina, Aynur Akshinbay, Manshuk Bayetova, Lado Mkrytichyan, Anadjamal Haliepesova and Djandurdy Ataev. 2000. *Agricultural Policy Reforsm and Food Security in Kazakhstan and Turkmenistan*. Food Policy 25(2000)
Agnov S. Kepbanov Y., Oweznrado K. Ovezberdiyeva 2015. A.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Farm Restructuring, Agricultural Policies and National Adaptation Strategies to Climate Change in Turkmenistan.
FAO Investment Center. 2012. *Turkmenistan-Agricultural Sector Review*. Rome. FAO
M.A Ataev. 2000. *Reform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the Economy for Turkmenistan*. Tokyo.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참고사이트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juri1540?Redirect=Log&logNo=80019612054>)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http://tkm.mofa.go.kr/korean/eu/tkm/policy/overview/index.jsp>)
FAO STAT(faostat.fao.org)